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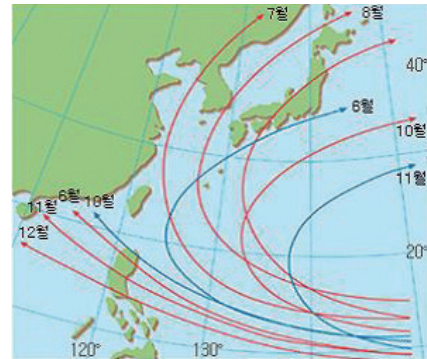


태풍권내 운항방법 및 묘박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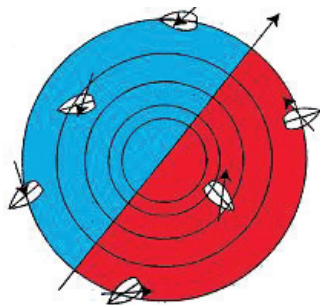
태풍의 특성

- 태풍은 적도부근 발생 북서진(시속20Km)하여 북위 25°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세력도 강해진다.
- 태풍의 진로 예측은 매우 어려우므로 계속하여 기상예보를 청취하여야 한다.
-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일 때 태풍이 근거리에서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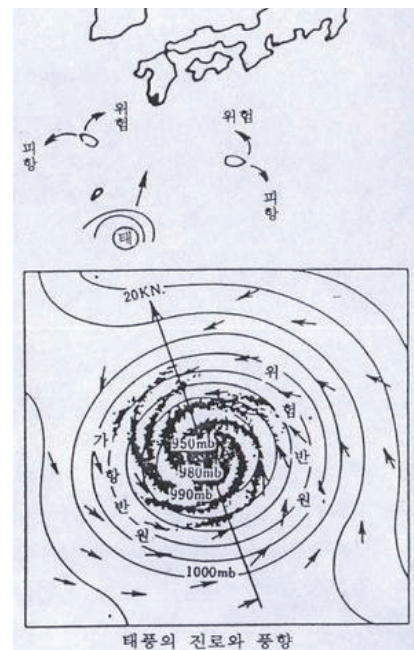


선박운항 상의 태풍분석

- 태풍권내에서 태풍진행방향의 오른쪽은 바람과 태풍의 진행 방향이 같아 바람이 강하게 불어 위험반원이라 하며
- 왼쪽은 바람과 태풍의 진행방향이 반대가 되어 바람이 약해 가항반원이라 한다.



※ 화살표는 바람의 방향



태풍의 진로 상에 있을 때

- 풍향이 일정하고 풍력이 높아지며 기압이 내려가고 있으면 자선은 태풍의 진로 상에 있고 태풍이 접근하여 오는 것이다.
- 이 때는 즉시 가항반원으로 항로를 잡아야 한다.



위험반원에 있을 때

- 태풍 진행방향의 우측을 말하며, 풍향이 시계방향으로 바뀌면 위험반원에 있음
- 바람을 우현선수에서 받도록 운항하면 태풍중심에서 멀어짐
- 히브 투(Heave to) 방식 항해

※ Heave to : 타효가 유지되는 최소의 속력으로 전진하며 풍랑을 선수 20°~30° 정도로 받는 자세를 말함



가항반원에 있을 때

- 태풍 진행방향의 좌측을 말하며, 풍향이 반시계방향으로 바뀌면 가항반원에 있음
- 바람을 우현선미에서 받도록 운항
- 추파를 받게 되므로 운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
- 항해불가 시 라이 투(Lie to) 방식을 취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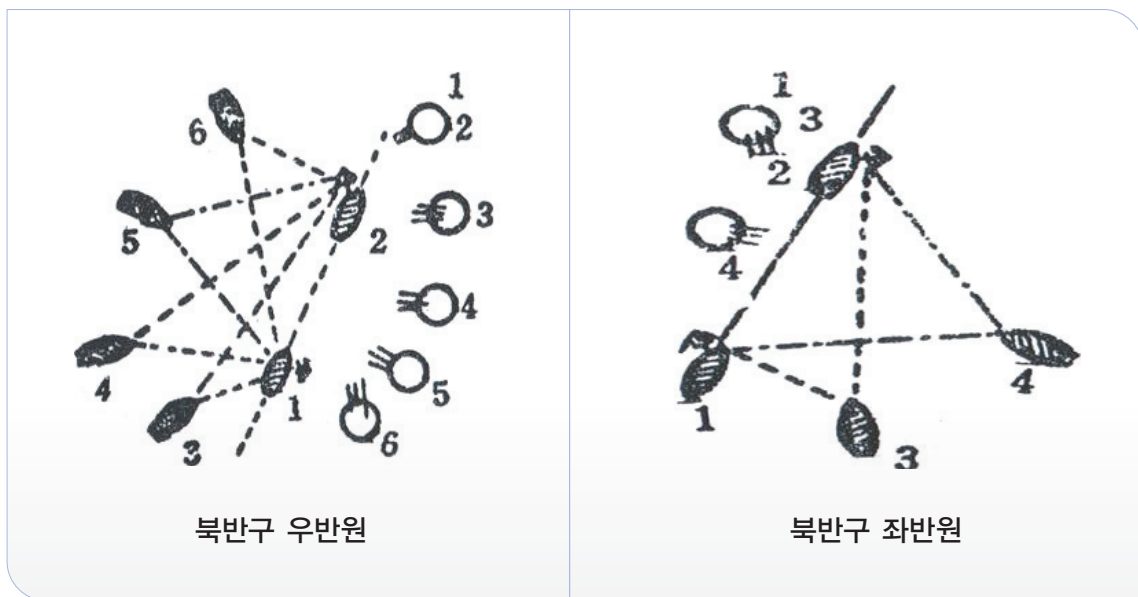
※ 라이 투(Lie to) : 기관을 정지하거나 운전부자유가 된 경우, 바람과 파도를 따라 표류하는 방법으로 복원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해모나 기타 저항물질을 사용하여 선수로 파도와 바람을 받게 하는 것





태풍에 부딪힐 때 일시 피난요령

- 북반구에서 태풍의 우반원에 위치할 때(좌반원 반대)
 - ① 우현선수로 바람을 받고 우현 닻 투하
 - ② 항진 후 좌현 닻 투하
 - ③ 풍력이 최대에 달하기까지 좌현 닻을 길게 우현 닻을 짧게
 - ④ 풍력 최대 시 좌우 같은 길이로 하고(닻줄은 최대 사출)
 - ⑤ 그 후 풍향에 따라 좌현 닻을 짧게 우현 닻을 길게 잡음



※ 바람이 불기 시작 후 6점 변화 시 최대풍속 다시 6점이 변화 시 태풍이 지나간 것임
(1점 = 11.25°)
- Araki 선장 이론

- 상기 방법들은 남반구에서는 반대로 적용해야 함

※ 주의 : 해일을 동반하는 태풍 등의 악천후에는 해일을 막을 수 있거나 영향이 없는 항·포구로 대피하고 인양 가능한 소형 선박은 육지 등 안전한 곳으로 인양하여 철저히 고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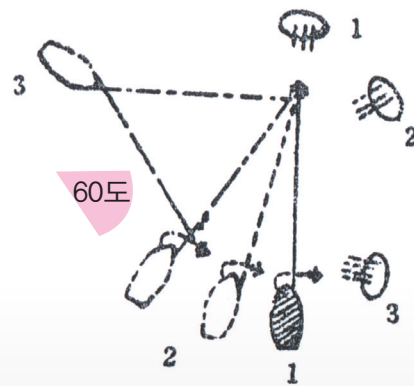


- 태풍내습 시 항내 대피가 부적절 할 때, 적절한 묘박지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묘박을 하도록 한다.

X60 방식

- 북반구에서 태풍진행 방향의 우반원에 위치할 때

우현 닻 투하 후
선박이 우현으로 최대로 휘둘러졌을
때 좌현 닻 투하, 점차 그림과 같이
하여 낚 각이 60°가 되게 한다.
(좌반원에서는 반대)



V60 방식

- 북반구에서 태풍진행 방향의 우반원에 위치할 때

좌현 닻 투하 후
선박이 우현으로 최대로 휘둘러졌을
때 우현 닻 투하, 점차 그림과 같이
하여 낚 각이 60°가 되게 한다.
(좌반원에서는 반대)

